

# Implic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Special School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eachers

##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시사점: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Miyoung Ji<sup>1</sup>, Changhyeon Lee<sup>2</sup>, Changun Park<sup>3</sup>

지미영<sup>1</sup>, 이창현<sup>2</sup>, 박창언<sup>3</sup>

<sup>1</sup>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lime2848@naver.com

<sup>2</sup>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yu\_marine@naver.com

<sup>3</sup>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changunpark@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Changun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peration of general high schools and the operation of other special high schools in relation to the special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which is set to be fully implemented in 2025. For three teach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Busan, the experience of operation and life as a special teacher were examined together using the narrative exploration method of Klandin & Connelly (2000).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pril 5 to July 12, 2023, with general special school teachers, teachers belonging to the curriculum support group, and teachers in charge of the curriculum at the special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At this time, the initial questionnaire was semi-structured, and then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open questions. The data collected in this way was finally derived from the final result through basic coding work, and three topics were finally derived according to the presented research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special teachers were confused due to the lack of a basic system for operating the special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Second, operators experienced a gap between the academic reality of special schools and the applic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were making efforts to reduce the gap. Third, as a practitioner, alternatives should be prepared and implemented to apply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upport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for the operation of special schools, and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f special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special teachers before applying the special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provide basic data on the Office of Education's practical and alternative suppor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Keywords:** Special Education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Special Education, In-depth Interviews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25년에 전면 시행을 앞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일반고등학교 운영과 다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어려움을

Received: April 08, 2023; 1<sup>st</sup> Review Result: May 14, 2023; 2<sup>nd</sup> Review Result: June 19, 2023  
Accepted: July 25, 2023

탐색하는 데 있다. 부산시 소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교사 3인을 대상으로, Clandinin &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 경험과 특수교사로서의 생활을 함께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5일~7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일반 특수학교 교사, 교육과정 지원단 소속 교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이때 초기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하였으며, 이후 개방형 질문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을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기초 코딩작업을 거쳐 최종 결과, 제시한 연구 문제에 따라 최종적으로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체제의 부재로 특수교사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둘째, 운영자들은 특수학교의 학업적 현실과 고교학점제 적용에 있어 괴리감을 경험하며 그사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셋째, 실무자로서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며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과 특수교사의 이해와 배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적용에 앞서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청의 현실적, 대안적 지원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특수교육, 심층 면담

## 1. 서론

한국 교육제도의 큰 변화라고 할 만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제도이다[1]. 이 제도는 대학생처럼 과목 선택권에 있어 고등학생이 주체가 됨을 강조한다. 2018년에 이 제도가 언급된 이후 올해 2023년에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어 총 이수학점 또한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뀌었다. 이어 교육부는 2025년에 모든 고등학교, 즉, 일반고, 직업계고, 특수목적고, 특수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것을 예고하였다. 전면 시행이 되면, 학업성취율이 40% 미만이면서 출석률이 2/3 미만의 학생에게는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는 미이수 제도 또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를 통해 연구·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일반계고와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2]. 하지만 이 대상에 배제된 특수학교는 5년이 늦은 2022년이 돼서야 국공립특수학교 7개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으며, 2023년에 4개교가 연구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3].

교육부는 2022년 12월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문서 내용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 및 생활 적응 및 기초 직무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수교육 전문 교과로 편제하여 2025년부터 특수학교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4]. 현실적으로 특수학교는 시범 운영이 늦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고나 직업계고와 같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지침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 학교의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진로와 학습 설계에 있어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상담·지도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아직 다져야 할 논제가 많이 주어져 있다[5]. 또한 일부 학교 선택으로 운영되거나 선택과목 과정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정 교과에의 경우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여 학생 역량 함양을 고려한 선택과목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6]. 이러한 일반 학교의 현황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에도 과연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많다[3]. 게다가 선행연구도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부족한 현실이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에 관한 연구는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고교학점제'로 검색한 논문만 333건으로 현장 교사, 교육전문가, 정부에서는 많은 연구가 실행되었다[7].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고교학점제에 관한 연구는 KCI에서 '고교학점제' 결과 내 '특수', '장애'로 검색한 결과, 11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2025년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예측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박윤정 외(2021)은 고교학점제를 실제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에 대해 연구하여 일반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8]. 성희원, 황순영(2022)는 고교학점제 시행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운영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9]. 김민섭, 전병운(2022)는 인문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경험과 인식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평가 관련 및 이수 기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10]. 이 연구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운영해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어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각 연구에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범·연구학교를 운영에 관한 연구가 2025년 시행을 앞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25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연구학교 교사의 사례를 근거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일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차이를 밝힘에 있다. 더불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2022 개정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 과정 개발에 작은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경험이 어떠한가? 둘째, 일반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어려움이 특수학교에서도 동일한가?

## 2. 일반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운영 차이

일반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항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성화고등학교, 자율고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수학교는 장애 종류에 따라 시각 장애 특수학교, 청각 장애 특수학교, 지체 장애 특수학교, 지적/발달/자폐성 장애 특수학교, 종합형 특수학교로 5개로 나뉜다. 또한 특수학교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가 모두 함께 존재하여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특수학교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과 중등학생과 함께 통학버스를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영역과 시간 운영과 관련되는 통학 현황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11]. 아래 [표 1]은 B특수학교의 통학별 인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통학버스를 이용(83%)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B특수학교의 통학별 현황

[Table 1] Current Status of B Special School by Attendance

통학 방법	통학버스			자가용	자력	기타	총 계
	30분 이내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인원수(명)	52	100	9	5	21	6	193

[출처 B특수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모집 요강]

수업시간표 역시 일반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운영이 다르게 되고 있다[그림 1]. 일반고등학교는 정규수업이 9시10분에서 시작하여 16시40분에 종료되는 반면, 특수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급의 통학버스 탑승때문에 오후 2시 40분 또는 오후 3시 30분에 학생들은 집으로 귀가를 하여 한다.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일반고등학교는 기초수준 보충수업이 가능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보충수업의 제약을 받는다.

시 간	일 과	비 고
08:50 - 09:00	조회	10분
09:10 - 10:00	1교시	50분
10:10 - 11:00	2교시	50분
11:10 - 12:00	3교시	50분
12:10 - 13:00	4교시	50분
13:00 - 13:50	중 식	50분
13:50 - 14:40	5교시	50분
14:50 - 15:40	6교시	50분
15:50 - 16:40	7교시	50분
16:40 - 17:00	청소 및 종례	20분
17:00 - 17:50	방과후 수업	50분
17:50 - 18:40	석 식	50분
18:40 - 20:00	자기주도학습 1	80분
20:10 - 21:30	자기주도학습 2	80분

<일반고등학교 시간표>

■ 일과 운영

구 분	월(6교시)	화(7교시)	수(6교시)	목(7교시)	금(6교시)
08:40-08:50 (10)	등 교 지 도				
08:50-09:00 (10)	건강체조 및 조례				
09:00-09:40 (40)	1교시				
09:50-10:30 (40)	2교시				
10:40-11:20 (40)	3교시				
11:30-12:10 (40)	4교시				
12:10-13:10 (60)	점심시간				
13:10-13:50 (40)	5교시				
14:00-14:40 (40)	6교시	방과후(중학)	6교시(고등/전공)	6교시	
14:40-14:50 (10)	종례/송차지도	쉬는 시간	종례/송차지도	쉬는 시간	종례/송차지도
14:50-15:30 (40)	방과후학교(중학/고등/전공)		7교시		
15:30-15:40 (10)	방과후 강사 종례/송차지도		종례/송차지도		

\* 점심시간 이용: 중학교-12:05, 고등학교-12:10, 전공과-12:30

\* 방과후학교 미운영시는 6교시까지 운영 (목 7교시→화 6교시, 고등 7교시 운영 안 함)

<특수학교 시간표>

[그림 1] 일반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간표

[Fig. 1] Timetable of General High Schools and Special Schools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있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련된 특수교사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수학교 일반교사, 교육과정 지원단 특수교사,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의 경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2022년~2024년까지 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되고 있고 있는 B 공립 특수학교이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되어 일반교사로서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 A를 선정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는 실질적인 운영과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행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이어 연구학교로 지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 교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교육과정 지원단으로 파견을 나가는 특수교사를 선정하여 교육청과 학교 간 업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각 특수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으로 그의 경험이 본 연구의 논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

구분	연령	직위	교직경력
연구 참여자 A	30대	특수학교 일반 교사	15년
연구 참여자 B	30대	교육과정 연구단	15년
연구 참여자 C	40대	교육연구부 총괄 부장	20년

### 3.2 자료 수집 및 분석

#### 3.2.1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Merriam(2000)의 일대일 심층 면담[12]으로 개방형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성희원, 황순영(2022)의 논문에서 교사의 경험에 대한 질문[13]과 김민섭, 전병운(2022)[14]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연구 목적과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자와 특수교육전공 박사 1인, 교육학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진이 개발한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제별 질문지 내용 체계

[Table 3] Questionnaire Content System by Subject

구분	주요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 경력 및 업무 내용</li> <li>▪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경험</li> <li>▪ 교육과정 운영 경험</li> </ul>
고교학점제 인식과 시범학교와 연구학교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학점제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li> <li>▪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li> <li>▪ 고교학점제 연수의 경험</li> </ul>
고교학점제 운영 - 진로 및 학업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과목 선택 지도 경험</li> <li>▪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업 설계 지도 경험</li> </ul>
고교학점제 운영 - 수업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교실제 운영 경험</li> <li>▪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에 대한 경험</li> <li>▪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수 기준 및 미이수 대안</li> </ul>

고교학점제 운영 - 학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관리에 대한 경험</li> </ul>
시범학교와 연구학교 운영의 경험 과정 속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학교· 연구학교의 운영의 경험과정 속의 인식</li> <li>▪ 운영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li> </ul>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한 가능성</li> <li>▪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지원 요구</li> </ul>

### 3.2.2 연구 과정과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면담은 2023년 4월 5일~7월 12일까지 이뤄졌다. 먼저 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연구 윤리를 위한 동의서와 일정에 관하여 유선상으로 설명을 한 후 전자우편으로 동의받았다. 본격적인 면담은 연구참여자가마다 면담이 1~3회 이뤄진 후 이후 관련된 추가 질문은 SNS나 유선으로 10분 내외로 이뤄졌다. 인터뷰들은 유선 혹은 화상 전화를 통해 30~90분 동안 이뤄졌다. 심층 면담 전에 연구 목적과 참여 중단 권리, 연구 윤리, 비밀 보장, 익명성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으며, 녹음, 녹화에 대해서도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다. 면담 후 녹음 파일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고, 전사 작업 결과, 총 A4 150쪽 분량의 전사본을 획득하였다. 전사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녹취자료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높여 다시 정리하였다. 또한 공동 연구자가 여러 차례 반복해 읽으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 속에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에 Patton의 주제 분석방법[13]을 적용하여 연구 목표에 해당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 영역에 해당하는 면담 자료를 영역별로 범주화하고 원 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멤버 체크[14]를 통한 작업을 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여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에 대한 운영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심층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총 3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 범주와 15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대주제와 하위주제 및 의미 단위

[Table 4] Main Topic, Sub Topic, and Semantic Unit

대주제	하위 주제	의미 단위
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경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현장의 실태	고교학점제를 체감하지 못한 현장 급하게 맡겨진 시범 학교 운영
	시범 학교의 소외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지침조차 없던 그 막막함 시범 학교 담당자들의 고군분투
		선택 과목 개설의 어려움
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 개설의 어려움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학부모의 선택 특수학교 학생 관리의 어려움
		최소성취기준 보장과 평가의 어려움

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도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한걸음씩 나아가는 고교학점제 보충지도를 위한 연구학교 담당자의 책임감과 장벽
	특수교사의 변화가 필요한 현재	학부모와 사회가 바라보는 특수교사의 역할 전문성이 떨어진 특수교사의 역할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특수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특수교육학습대상자에게 더 필요한 사회에 나갈 준비 특수교육학습대상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4.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경험

##### 4.1.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현장의 실태

###### 1) 고교학점제를 체감하지 못한 현장

일반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이 안내되었을 때에는 전체적인 일반고등학교 교사들이 걱정과 기대를 하였던 반면 특수학교의 경우 다른 분위기가 나타난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지만 있을 뿐 체감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 과정 담당자가 아니거나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그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2021년 11월이었나 12월에 관련해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준비를 한다는 행정예고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잘 전달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문을 봤을 때,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라는 거를 이제 특수학교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전근을 왔어요.”(2023. 4. 5. C 인터뷰)

“특수학교는 중등 교육과정 초등 학교 따로따로 운영이 되거든요. B특수학교처럼 선택 중심이 있는 학교만 운영되고 올해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학교 자치에서 정해진 교과를 하고 있어요.”(2023. 5. 1. A 인터뷰)

일반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과정만 있지만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과정, 중등학교 과정이 모두 존재하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에는 다른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운영의 복잡성으로 직업 선택이 없는 특수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언급하였다. 한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이동에 대해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이동수업했을 때의 복잡성을 우려하기는 하였으나 특수학교의 경우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교실을 이탈하는 사례라 있어 더욱 걱정을 많이 하였다.

“년 초반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전체 선생님들의 70% 이상이 부정적이었어요. 고교학점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인식 자체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학교 특수학교들이 적용은 되니까 어쩔 수 없죠.”(2023. 4. 5. C 인터뷰)

더욱 특수학교 교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특수학교의 유예기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가 올 경우, 특수교육 정책팀에서 특수학교는 항상 2~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 고교학점제의 경우 2025년

전면 시행이라는 것을 교육과정 담당 교사가 아닌 경우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연구참여자들은 말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매년 교사 이동이 나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2025년이라서 그런지 매년 업무 담당자나 교사를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과정부장님도 내년에는 교육과정부장을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하다보면 또 내년에 다른 학교에 발령받아 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교육과정 부장을 맡아서 할 것이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못할 수도 있죠. 자기 업무 막 쳐내다 보면...”(2022. 5. 1. A인터뷰)

## 2) 시범 학교의 소외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일반고등학교는 국공립고등학교보다 사립고등학교가 전국에 더 많이 있다. 그렇다 보니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한 명의 교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인 특수학교는 교사가 이동을 하다 보니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 참여자 C는 전근을 간 학교에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개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준비가 되어 진행되었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그렇지 못해 현장 교사의 막막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특수학교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급하게 고교 학점제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학교를 지정 운영 요청으로 우리 학교가 하게 되었어요. 전국에 있는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 모델 개발 업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그래서 급하게 일단은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2023. 4. 5. C인터뷰)

연구 참여자 A 또한 구체적인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반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냥 지금 올해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의무도 아니고 내년에는 선택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 현행 유지를 하고 있죠. 일단은 다른 시험 학교 빼고는 지금 거의 다 비슷한 실정이에요.(2023. 5. 1. A인터뷰)

### 4.1.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노력

#### 1) 운영 지침조차 없던 그 막막함

일반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적용에 있어 지침이 빠르게 완성되어 적용되었던 반면,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한 지침이 완성 과정은 더딘 상황이다. 더욱이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경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적 할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 과목 선택, 최소 성취 수준을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의 어려움을 걱정하였다.

“2015 교육과정 안에는 중도 중복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한 토막 실려져 있잖아요.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학교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감해 중도 중복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라는 내용이 없어요.”(2023. 4.6. C 인터뷰)



## 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자들의 노력

2025년 시행이라는 기한으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노력은 '교육과정 지원단'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지원단은 일반고등학교에서도 2018년부터 운영되었다. 특수교육에도 교육과정 지원단이 있어 이 활동을 하는 연구참여자 B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관련해서 협의는 또 본청이랑 다 같이 하니깐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 지원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서 일을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단에서 그래도 최대한 옆에서 같이 얘기 듣고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모아서 전달 드리고..”(2023. 5.8. B인터뷰)

연구참여자는 시범 학교 담당자들이 연구와 더불어 협의회를 통해 1학년을 대상으로 선택 과목 편성 방법을 학교 교육과정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고굴분투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료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장애 유형에 대한 실행도의 효과성에 걱정이 많았다.

“이제 너무 좀 제한적이었던 거죠. 사실은 선택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설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아이들의 선택 효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라든지 실행을 해 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연구해야 될 주제는 많아요..”(2023. 4.5. C인터뷰)

## 4.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 4.2.1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 개설의 어려움

#### 1) 선택 과목 개설의 어려움

일반고등학교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위한 과목 개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과정의 대안을 내어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직업 교육을 할 수 영역이 한정되어 선택 과목 개설의 한계가 있다. 게다가 2022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특정 과목 증대에 대한 제한을 더욱 받게 되었다. 특수학교 내에서도 직업중심일 경우 선택의 여지는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제약을 받는다.

“B특수학교의 경우는 직업 전문 중 직업 중점이어서 다양한 교과도 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2023.5.1. A인터뷰)

“2022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늘릴 때는 창의적 체험 활동, 일상생활활동에서만 50%를 감해서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 다른 과목을 건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선택의 폭을 줄여버리는 상황이 된거죠.”(2023.4.5. C인터뷰)

“학교에서 사실 특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이게 학점이라는 느낌이 잘 안 오고, 일반 학교처럼 교과가 많은 것도 아니고..”(2023.07.12. C인터뷰)

뿐만 아니라 교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수교사의 전공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데다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 하더라도 특수 교육을 받은 강사가 아닐 수 있다.

## 2)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학부모의 선택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과목 선택의 경우 학생들이 주가 된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선택으로 바뀔 우려가 매우 크다. 장애가 중증 중도장애 학생들로 구성될 경우, 학생 선택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른 일부 강좌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학부모들은 다 식품 가공을 선호해요. 그 속에 바리스타 과정이랑 제빵이 있거든요. 언론에서 바리스타 영상으로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커피를 뽑고 하는 데서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2023.4.5.C인터뷰)

## 3) 특수학교 학생 관리의 어려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수요가 전부 일부 강좌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수학교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특수학교에서 중증장애 학생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수학교 학습자들은 83%가 통학을 하고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같은 학교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동교육과정으로 인한 타 기관이동과 학생들의 보충 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의 어려움이 있다.

“특수학교는 지금 배치돼 있는 특수학교들은 권역별로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서 다른 특수학교로 가려면 40~50분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두 같이 있는데다 모두 똑같은 학교 버스를 타고 등교해서 똑같은 학교 버스를 타고 하교를 해야 돼요.”(2023.5.1A인터뷰)

### 4.2.2 최소성취기준 보장과 평가의 어려움

현재 특수학교에서 중증장애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관찰평가, 서술평가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 말하는 최소 성취 기준 40%를 기존 특수학교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고민이 많았다. 최소 성취 기준 도달이 되었는지 도달이 되지 못했는지는 기준과 근거가 확실해야한다. 보충지도는 그런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에 맞는 어떤 성취 기준을 자체적으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애가 이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다라는 거가 파악이 돼야 보충 지도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개념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것들 좀 의문으로 남죠.”(2023. 4.6. C인터뷰)

## 4.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도전

### 4.3.1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 1)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있어 시작은 학습자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과목 선택 지도와 학업 설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 취지를 바탕으로 최소 성취 기준 수준에 맞춰 보충 지도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택 교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최소 성취 기준 수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 보충 지도 방안에 대해 지금 포커스를 맞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2023. 4.5 C인터뷰)

“교육부와 영남권 특수학교 두 군데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해 합동 컨설팅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모호한 게 많지만 개발하는 중이니깐, 내년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2023. 7.12. C인터뷰)

“저희가 한 9월 정도 특수학교 대상으로 연수를 준비 중이에요.”(2023. 5.8. B인터뷰)

## 2) 보충지도에 위한 연구학교 담당자의 책임감과 장벽

C교사는 연구학교의 담당자로서의 온갖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온라인 보충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배움터라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기본 교육과정에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 온라인 안에서 이수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입 자체가 힘들어요. 애들 온라인 학습하는데 이런 귀찮은 절차를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래서 국특원에서 학교 관리자 번호를 부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2023. 4.5. C인터뷰)

### 4.3.2 특수교사의 변화가 필요한 현재

#### 1) 학부모와 사회가 바라보는 특수교사의 역할

최근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였으나,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라는 책임이 과거와 변화가 없다는 현실과 더불어 학부모 민원에 체력을 소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니 특수교사는 교재연구나 수업개선 등 교사 주요업무 조차도 힘겨워하며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받기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보육자', '관리자' 등으로 일반교사나 사회에서 여기는 인식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지금 일반 특수학급에 있는 애가 사고를 쳐서 소리 지르고 있어서 일반 수업에 참여하기 힘들니까 선생님 데려가서 특수학급에서 좀 관리해주세요 라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같은 교사로서 보기보다는 어떤 한 명의 보육자, 학교 안에 있는 별도 관리하는 학생의 관리자라는 시선이...”(2023. 4. 6. C인터뷰)

#### 2) 전문성이 떨어진 특수교사의 역할

과거 특수교사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현재는 특수교육과라는 전공체제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현실은 사회과 교사가 특수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는 특수교사는

특수교육과아 아닌 일반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경력을 인정받은 후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추가 연수를 받는 것을 추천하였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과목의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하는 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예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 수학 가르치는 게 더 어렵지 않아?라고 물어보니 1+1만 알면 되는데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2023. 4.6. C인터뷰)

“특수교사는 애들 점심 먹을 때도 챙겨야 되고 쉬는 시간에 챙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시간 자체로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수업 교재 연구하고 현장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지쳐 있는데.”(2023. 4.5. C인터뷰)

### 3)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C교사는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교육과정의 일관화와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근무 환경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든지 그러니까 학급당 인원수를 적정화를 시켜야 되요. 그런데 교육과정과 체제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특수교육현장에서는 단계성과 계속성이 안정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아이들한테도 장기적으로 일관성있는 교육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2023. 4. 5. C인터뷰)

“우리 학교가 직업 중점 학교로 고교학점제 체제에 맞춰 선택 과목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이 직업 교과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요.”(2023. 4. 5. C 인터뷰)

“중등 국어 선생님이 특수 선생님이 국어를 저는 더 잘 가르친다라고 봐요. 저는 일반 전공에 있는 선생님들이 특수 아이들 장애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차라리 특수 교사가 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2023. 4. 6. C 인터뷰)

#### 4.3.3 특수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 1) 특수교육학습대상자에게 더 필요한 사회에 나갈 준비

특수교육학습대상자의 진로는 일반 학생에 비해 그 장이 좁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직업 교육 보다는 사회성 교육을 원한다고 하였다. 취업하는 아이들의 60%이상이 중소기업 산업체 제조업으로 취업을 하며, 그 곳에서 하는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청소나 정비 관련 업무이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고집을 피우거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

“특수학교의 진로는 취업을 할 것이냐 시설을 갈 것이냐 보호작업장을 갈 것이냐 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복지관에 갈 것인가, 아님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냐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부족해요.”(2023. 04. 05. C 인터뷰)

“일상생활 활동이 사실 중도 중복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자립 기술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 같은 것들을 더 학교 공간 안에서 학교 교육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에요.”(2023. 4. 6. C 인터뷰)

## 2) 특수교육학습대상자에 필요한 가정 연계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

C교사는 오히려 개인의 진로가 아닌 가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일반 학생과의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과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그 교과에 따라 운영해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된 진로 상담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2023.4.5. C인터뷰)

## 5. 요약,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특수 교사의 심층 면담을 이용하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교육 실태와 어려움 및 개선 방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크게 3가지의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경험으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고교학점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2025년 전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 담당 교사나 교육과정 지원단에 참여하는 특수교사의 경우 최소 성취 기준, 과목 선택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선택에 대해 장애 유형에 따라 학생 선택이 아닌 학부모의 취향이나 선택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과목 쏠림 현상이라 보강이나 공동 교육 과정에 대해 발생하는 학생 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다. 또한 최소 성취 기준 보장과 평가는 운영자들에게는 과제로 남았다. 셋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도전으로 교육과정 운영자의 노력과 도전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연수나 성취 기준 개발에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중 진로 및 학업 설계, 수업 및 평가, 학급 관리라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시범·연구학교의 운영 경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적용에 있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적·환경적 기초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운영 부재이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올 때, 일반학교의 학생들 보다 더 오랜기간 준비기간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그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특수교사로 하여금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큰 걱정을 가져왔다. 또한 관찰 및 서술평가로 진행하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단순히 수치화 시켜 성취율을 판단하는 것과 이수 또는 미이수의 기준을 정할 때 특수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빠른 지표를 마련하지 못한 점, 선택교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특수교사 부족이나 환경적 시설을 확충 단계에 있다는 점들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특수교사의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것이다.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듯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은 이수학점, 기초성취율 기준, 평가방식, 공강시간의 활용 등 교사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중도장애 학생들의 선택교과 쏠림 현상, 특수교육대상자의 공간시간 관리는 특수교사들에게 부담이 된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현재 운영되는 연구·선도학교의 현장 지원 및 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통합교육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사례, 문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체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9].

셋째,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한 전문성 또한 필요하다. 특수교사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더불어 교재 연구, 수업 연구를 하기 위한 특수교사의 시간적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 변화가 절실하다. 또한 중도 중복 학생 관리의 지원으로 관리교사나 전문 상담교사의 추가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특수교육대학원의 개설을 통해 일반 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특수교육자격을 갖는 체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함에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범·연구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담당 교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학생에 적합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시범·연구학교에 대해 교육부·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학부모·기관의 서로의 신뢰감을 쌓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2022년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준비하고, 2023년에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교사의 심층 면담을 통해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한 사례로 알아보았다. 이 어려움을 고찰해 봄으로써 정책 운영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유연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연구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특수학교에 적합한 제도의 유연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현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도 운영상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과 운영을 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기관은 귀를 기울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교사업무의 부담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진정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교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특수교육지원교사로 생활교사와 진로가족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개별화 학습이 반영된 고교학점제 운영 개발 모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다양한 학습자의 환경을 가진 환경이므로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유연화와 자율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 진정한 학습자를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특수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사전문프로그램과 특수교사 인식 개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와 달리 매우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학생에게 쏟아야 하는 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을 하고 나면 하나의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적 할애가 필요하다. 이렇듯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특수교사에게는 그 교육과정을 습득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시간을 개인 시간을 쪼개어 할애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장애 유형 학생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 지 막막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교육부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운영 지침, 총론, 각론 등의 제시를 요청하였을 때 아직

준비기간이라는 답변으로 현직 특수교사로 하여금 막막함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에 대한 학교의 보호자, 관리자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수교사의 전문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의 교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일반교사가 특수교육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에 앞서 교육부에서의 진행 상황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를 함에 있어 특수학교의 수가 적은데다 연구학교는 전문 4개교에 지나지 않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함에 이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특수학교의 운영 목적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유형별, 학교 목적별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한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 6.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3년 정부재원(교육부 4단계 BK21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References

- [1] <https://m.blog.naver.com/moeblog/221340439772>, Apr 8 (2023)
- [2]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6703&topic=>, Jan 14 (2020)
- [3]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30>, Apr 8 (2023)
- [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Jul 22 (2023)
- [5] Y. B. Go, E. L. Chi, Students' perception of taking career-related subjects 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standard-based assess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 Vol.22, No.22, pp.1085-1102.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2.1085>
- [6] H. C. Jeong, K. D. Lee, Exploration of the Difficulties and Ways to Improve in Operating Elective Subjects Experienc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022), Vol.26, No.6, pp.51-64.  
DOI: <https://doi.org/10.15831/JKSSPE.2022.26.6.51>
- [7] S. Cho, H. Shin, The Trend of Academic Research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 Network Text Analysis,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2022), Vol.44, No.3, pp.149-167.  
DOI: <https://doi.org/10.33645/cnc.2022.03.44.3.149>
- [8] Y. J. Park, E. Y. Kang, H. J. Seo, K. O. Park, Exploring the Operation Plan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through an Analysis of the Opinions among Teachers with Experienc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21), Vol.37, No.4, pp.261-290.  
DOI: <https://doi.org/10.31863/JSE.2021.11.37.4.261>
- [9] H. W. Seong, S. Y. Hwang, Perceptions and Needs of Special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 Focus on the Field of Integrate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22), Vol.57, No.1, pp.51-74.  
DOI: <http://dx.doi.org/10.15861/kjse.2022.57.1.51>

- [10] M. S. Kim, B. U. Jeon,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General Teachers at ‘Leading School A’ with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022), Vol.17, No.1, pp.111-136.  
DOI: <https://doi.org/10.26592/ksie.2022.17.1.111>
- [11] H. Moon, J. Lee, Exploring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Special Schools, *Special Education Research*, (2023), Vol.22, No.2, pp.5-33.  
DOI: <https://doi.org/10.18541/ser.2023.2.22.2.5>
- [12] S. B. Merriam,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Available from: <http://eds-courses.ucsd.edu/tep288a/shortbook.pdf>
- [13] Patton, M.Q.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p.532, (1990)  
DOI: <https://doi.org/10.1002/nur.4770140111>
- [14] Y. S. Lincoln,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SAGE, Thousand Oaks, pp.289-331, (1985)  
DOI: [http://dx.doi.org/10.1016/0147-1767\(85\)90062-8](http://dx.doi.org/10.1016/0147-1767(85)90062-8)